

‘고창 고인돌박물관’ 재개관

디오라마 빔프로젝터 활용 복합형 미디어전시·고창 역사 유물 특별전 등 진행

고창군 고인돌박물관이 설립 12주년을 맞아 상설전시실을 전면 개편하고 제2의 도약을 꿈꾼다.

지난 7일 고창고인돌박물관은 이날 오후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의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관 축하 행사를 열었다.

새롭게 바뀐 전시실은 디오라마(축소모형)와 빔프로젝터를 활용해 관객 몰입도를 높였다. 또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거석문명인 ‘고창 고인돌 유적지’의 사계(四季)를 160도 입체 콘텐츠로 소개하며 생동감을 더한다.

유물 전시 역시, 함운람습 밀폐형 진열장으로 보강해 3000년 전 청동기 유물의 진품을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기획전시실에선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역사 유물을 선보이는 특별전도 열린다. 조선의 타임캡슐로 일컬어지는 ‘이재난고’,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출토유물’, ‘무장현 관아와 읍성 출토유물’ 등 쉽게 볼 수 없던 유물들이 대거 선보여진다.

2008년 문을 연 고인돌박물관은 국내최초 고인돌 전문박물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군의 축조방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청동기 생활상을 재현해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2018년 1종 전문박물관



고창고인돌박물관은 지난 7일 오후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의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관 축하 행사를 열었다.

등록에 이어 2020년에는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고인돌뿐 아니라 지역 전체 유물들의 보관·전시·관리 역할이 중요해졌다. 고창군수는 “미래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

시 콘텐츠를 보강해 관람객에게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 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

문화예술창작·문화예술기반구축·청년예술창작 분야 총 16억5천만원 규모 지원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오는 28일까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구 문진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예술인의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해 장르별 예술 현장 간담회, 청년 예술가 간담회, 문화예술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2022년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변경된 점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가산점 부여 ▲단체 대표자 사례비 인정(총사업비의 10% 이내) ▲지원자 책임 신청제 도입 ▲장르별 심의 기준 세부평가 내용 적용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문화예술창작·육성·심화·창작·집·문예지 발간, 문화예술기반구축지원, 청년 예술창작지원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총 16억 5천만 원이다.

문화예술창작·육성 분야는 정기연주회, 발표회, 개인전 및 중·소규모 전시 및 공연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각예술에 3백만 원, 공연·다원예술에 4백만 원 영역 지원한다.

문화예술창작·심화 분야는 대규모 전시 및 공연을 시각·공연·다원 장르에 최소 4백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문화예술창작·창작집 발간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개인 창작집 발간에 2백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창작·문예지발간은 협회지, 동인지, 문예지 등 단체 발간이 대상이며 최소 2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다.

문화예술기반구축 분야는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예술인을 발굴·육성하거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전, 경연대회, 강연, 평론, 연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문학·시각·공연·다원 장르에 최소 4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예술창작 분야는 전체 예산의 10%를 의무 배정해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하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문학 2백만 원, 시각 3백만 원, 공연·다원예술 4백만 원씩 지원한다.

가산점 항목은 ▲전라북도 군 단위(8개 지역) 주소지와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 ▲

2017~2021년까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6개 사업에 미선정된 개인·단체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 등이다. 항목마다 2.5점씩 가산점이 부여되며 합산 최대 5점까지 인정된다.

지원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진행하며,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공고문을 통해 신청 자격과 지원내용을 확인 후 해당하는 1개 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신청해야 한다. 단체 신청 시 대표자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면 행정심사에서 결격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단체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심사는 행정심의·전문가심의·토론회의로 진행하며, 문화예술창작·창작집 발간 분야는 신청자의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후 제출한 작품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3월 중 재단 홈페이지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박휴용·김창희 교수, 세종도서 선정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학술도서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한 2권의 책이 2021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도서는 박휴용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포스트휴먼 학습론’과 김창희 교수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백두혈통의 정치리더십’ 등이다.

박휴용 교수는 2019년에도 ‘융합 지식과 융합 교육과정’이라는 책으로 세종도서에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포스트휴먼 학습론’은 기술중심 및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이 어떻게 지식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경험과 학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한 책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학교 지식의 성격과 학습 환경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미래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전망하고 있다.

또한 김창희 교수가 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백두혈통의 정치리더십’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소위



백두혈통의 승계란 무엇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독특한 정치체계의 작동 기제를 살핀 책으로, 북한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제1부에서 백두혈통과 정치권력승계 문제, 제2부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통치 이데올로기, 제3부는 국가기구의 최고 지위인 주석·국방위원장·국무위원장과 헌법에 관한 내용, 제4부는 김정은의 정치리더십 발취로 인한 유일영도와 자강력제 일주의 그리고 국가핵심노선의 전환 등이 서술돼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매년 교양 및 학술도서로 가치가 높은 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제주대-조선대 ‘Local Learning Project’ 성료

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지난 7일 전주대-제주대-조선대 3개 대학이 함께하는 ‘제3회 Local Learning Projec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5~7일 3일 간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호남·제주권 지역문화에 대한 대학생 간의 정보공유 및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시작돼 제1회 제주 4·3사건(제주대 주관), 제2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조선대 주관)에 이어 올해는 근대화와 민족운동의 근간이 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 대학 강의실에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진행,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참여자들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특강과 관련 영상 시청, 골든벨 등의 활동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팀별 콘텐츠를 제작 발표했으며, 특강과 영상자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학예연구사 자문으로 구성했다.

프로젝트 최종 발표 결과 대상은 역사인터뷰를 콘셉트로 한 ‘타조’팀(전주대 소지은, 제주대 김하영, 조선대 류지은, 송기준, 안두경)이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전삼조이제일’팀(전주대 김민영, 김해림, 소병연, 제주대 이나영, 조선대 정애진, 황현영)이 우수상은 Dos팀(전주대 서기은, 장서익, 제주대 MATISAEVA ZHANNATA, 김수민, 조선대 전은채, 지다린, 조혜선)이 차지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신임 춘향제전위원회에 이광연 원장 추대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춘향제전위원장 추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92회-제93회 춘향제전위원장으로 이광연 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광연 신임 춘향제전위원장은 아영면 출신으로, 현재 서울에서 이광연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 호남향우회장·재경 아영향우회장·재경 남원향우회장 등을 역임, 작년 수해로 피해를 입은 남원을 위해 많은 성금모금

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남원시 중점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이 위원장은 1964년 생으로 경희대한의학과(한의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2019년 새마을공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국민건강을 위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수백회 출연했다.

이광연 위원장의 임기는 2022년과 2023년의 2년간이며, 춘향제의 위상을 더욱 높여 줄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